

충성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과 복음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사-

여호수아1:7-8, 디모데 후사1:13-14

정윤돈 목사님

* **수1:7-8**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 **딤후1:13-14**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거룩한 성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찬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올인하고 또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증거되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신 언약의 레미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말씀성취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오늘 말씀제목은 ‘충성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과 복음’이다. 김동길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김감사와 김요셉이다. 그때는 총각이었지만 지금은 두 사람 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다.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NGO 사업과 학교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허락을 잘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지 언어와 영어를 잘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설명과 설득이 잘되고 금방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선교사님이 20~30년 현장에 있어도 언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후대가 자라 현지 언어와 문화를 알고 팀이 되니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목회자로, 한 명은 NGO사역을 하며 함께 팀이 되었고 머느리도 간혹사 출신이 들어왔다. 15년 전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선교사님이 약 20년 동안 사역했던 현장을 잃고 쫓겨나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는데 한 사모님이 헌신하여 밭을 내 3천 평 정도의 땅을 사주었다. 그때 내가 NGO를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 조언했고 새로운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사역이 30년을 지나 또 새로운 30년을 향해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후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미션과 복음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케냐로 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 가정을 보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고 제자를 잘 세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현장에 가면 오랫동안 상담과 관련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내렸는지, 가정의 흐름과 영적 문제는 어떤지 자세히 보는 편이다. 그런데 케냐의 제자들을 보면서 놀랐다. 숫자는 약 30명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훈련이 잘되어 있었다. ‘선교사님이 후대와 제자를 참 잘 키워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여호수아도 언약했기 때문이다. 디모데도 마음이 어리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한 충성된 제자였다. 우리도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이 되고, 여호수아와 디모데와 같이 70현장과 237나라를 사실적으로 살리는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충성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인 의미의 충성이 아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일곱 가지 흐름으로 목상해 보면 충성된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볼 수 있다. 첫째는 갈보리산, 김관산, 마가다릭방이다. 이것은 복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복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세상적인 일은 잘될 수 있어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충만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 둘째는 천명, 소명, 사명이다. 내가 스스로 인생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라는 목표를 주셨다.(마28:18-20) 우리의 절대목표는 세계복음화이다. 그것을 나의 헌장에 맞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붙잡아야 한다.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70현장으로, 237나라로, 5천 종족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는 당연, 필연, 절대이다. 꿈만 크고 지금 해야 할 작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 잠깐 뜨겁게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시간은 늘 해야 할 일을 반복한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제 끝나나, 언제 그만두나’하며 살았다면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의 충성을 다하면 그 시간이 10년이면 40년이면 삼광된다. 넷째는 일심, 전심, 지속이다. 가정도, 교회회사도, 사업도, 전도도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면 안 된다. 평생을 두고 천년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대단한 것을 잠깐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오늘 할 일을 평생 지속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CVDIP, 즉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 어디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배울 것과 만들 것이 계속 보인다. 창조적인 사람에게는 마음에 간격과 설렘이 있다. 전도도 복음 안에서 창조적으로 해야 한다. 오직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유일성이 보이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된다. 여섯째는 24, 25, 영원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교회 앞에 암병원이 있어서 환자 가족들이 예배에 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장 암이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메시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삼중천(고후12:1-10)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던 것을 목상하게 되었다. 질병이나 경제문제나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가 먼저 없어야 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런 케냐사역을 준비하면서 김동길 선교사님이 참대 30개와 이부자리, 베개, 매트리스 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았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강의하러 가는 것인데 왜 참대 수십 개까지 요청하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이번 여여 지도자와 후원자들이 모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준비하는 것도 보였다. 선교사님이 필요하다고 연락했다고 해서 그 것을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 선교사님들은 여러 후원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1원도 좋고 10원도 좋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할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다른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를 바라보라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일곱째는 각인, 뿌리, 체질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와 복음을 목상하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 가야 한다. 디모데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온갖 부담되는 말과 요구를 남겼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부탁이다.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며 모세와 바울 같은 스승, 여호수아와 디모데 같은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일곱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확립되면 하나님이 주신 찬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이고, 그러면 오늘 해야 할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일이 보인다. 그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감당하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고, 24·25·영원의 기도 속에서 결국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까지 바뀌게 된다. 충성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을 평생 따라가는 것이다.

서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반복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이 절대미션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절대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쓰셔서 절대 가능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다. 디모데는 마음이 어리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설교원고를 마친 뒤 ChatGPT에 띄어쓰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하고 몸이 약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 그래도 나는 디모데의 예민하고 연약한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함께 일했던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다. 건측업을 하다가 늦게 신학교에 온 본인에 교회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했다. 몇 천 명되는 교회의 1년 행사계획을 줄을 맞춰 작성해서 유리판 아래에 놓고 하나하나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했다. 그런데 늘 속이 좋지 않아 마르고 힘들어했다. 너무 세세하게 신경을 쓰다보니 장이 안 좋았던 것이다. 디모데도 이런 식으로 예민하고 연약한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 그렇다고 ‘내 약점 이니까 괜찮다’며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알고 건강도 성격도 영적인 부분도 관리하고 조심해야 한다. 한 사람이 모든 부분이 망가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 무너져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우리도 나

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 내가 어떤 부분에 예민한지, 어떤 상황에서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지, 건강에서 무엇이 약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깨닫기만 해도 갱신이 시작된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내가 약한 그대에 강함이라"고 고백했다. 약함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 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약함이 선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

1)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거세진 상황에서 마음이 여린 디모데는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다고 하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유대공동체에서도 쫓겨날 수 있었다. 직장과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자"고 말해야 했으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디모데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 갇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다소 부끄럽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중독과 타락,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살릴 답은 복음이다. 중국에 가 보면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말씀을 너무나 갈급하게 받는 제자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 '이 나라가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도 제자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한일 간의 감정이 사라진다. 우크라이나도 정치적 문제 이전에 현장에 얼마나 좋은 제자들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 러시아 선교이야기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드론공격뉴스를 보고 "드론 날아온다는데 나 안 갈래요"하고 농담한 적도 있지만, 결국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복음과 선교이다.

2)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한다.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많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지키려고 도전해야 한다.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이다.

3)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한다. 전도와 선교를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명품이나 꽃, 자연과 작품을 아름답다고 한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다. 세상의 많은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허무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4) 사람을 분별하고 조심하라 바울은 목회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사람을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미션도 남겼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고 했고, 4장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주의하라고 했다. 교회는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므로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이 오히려 사기나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다. 예전에 순복음 교회에 다니던 친척에게 들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광고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가방을 옆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만 믿고 돈이나 사업문제로 함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도 아니다. 사람을 믿고 기대하기보다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이 부분은 도와주어야겠다. 지금 이 말은 헛된 말이구나. 이 문제는 조심해야했구나'하는 것이 보인다. 교회 안에서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나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하면서 분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체질된 중간지역자가 중요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라는 말씀처럼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를 보면 된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고 분란을 막는 길이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바울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딤후4:14)'라고 했다. 구리세공업자라는 직업은 우상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래된 가문과 삶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 믿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체질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말씀으로 사탄의 땅대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고 한다. 복음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안으로는 복음으로 강하고 밖으로는 부드러운 외유내강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2장 2절에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한다. 이것이 교회와 세계복음화가 지속되는 방법이다. 충성된 제자를 찾아 그 제자에게 복음

을 맡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제자를 보내주소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제자를 참사당교회에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한다. 2장 3절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 "축복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모두 좋아하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하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거의 명령하듯 말한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하다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한다. 교회 리더는 이런 자세를 계속 추구하며 자신을 갱신해야 한다.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고,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한다. 3장에서는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딤후3:1-5)" "자기를 사랑하며" 즉 창세기 3장의 체질에서 벗어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6:5).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창세기 6장, 11장을 의미한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6:10)"라고 했다.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필요한 것은 따라오지만 돈만 따라가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로 길게 열거한다. 모든 항목을 남에게 적용하기보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직접 읽으면서 '이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2. 디모데후서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

1)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로 구원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한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2)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3) 다윗의 씨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한다. 항상, 무시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복음만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답이다.

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단순히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라고 한다. "하나님 것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다. 왜 그렇게까지 명하는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사탄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정문제, 개인문제, 인간관계문제, 국가 간의 문제까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와 모든 성도에게 '나와 같은 인생을 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웠도다"라고 했다. 자신의 순교와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다. 죽을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후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충성된 제자의 마지막 고백이다.

결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도전과 미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일한 희망이 복을 가진 우리요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을 치유하는 복음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천명, 소명, 사명과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